

# 호남인과 함께 한 광주일보 59년... 격동의 순간들



## 1952 정전협정 1960 4·19 뜨거운 함성 1961 5·16 쿠데타 1980 오월 광주의 아픔 1997 김대중 대통령 당선 2002 월드컵 4강

1952년 2월10일 창간한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타블로이드 2면을 발행하면서 1면은 시사각각 전해지는 정전협정 소식을, 2면에는 지역소식을 중심으로 실었다. 3월19일자 신문에 옛 전남일보는 '타락한 부녀층의 풍기'라는 제목의 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다. 설문조사 문항은 '전시에 파마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인의 머리를 풀고 다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입술에 붉은 물을 바른 여인은 보기 좋은가?', '거리에 다니며 껌을 씹는 여인이 보기 좋은가?' 등이다. 물론 결과는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각각 1면 문항에 대해 찬성은 56명, 반대는 208명이었으며 2번과 3번 질문에는 각각 찬성 48·반대 257, 찬성 17·반대 285로 나타났다. 4번 역시 찬성은 고작 4명이고 반대는 267명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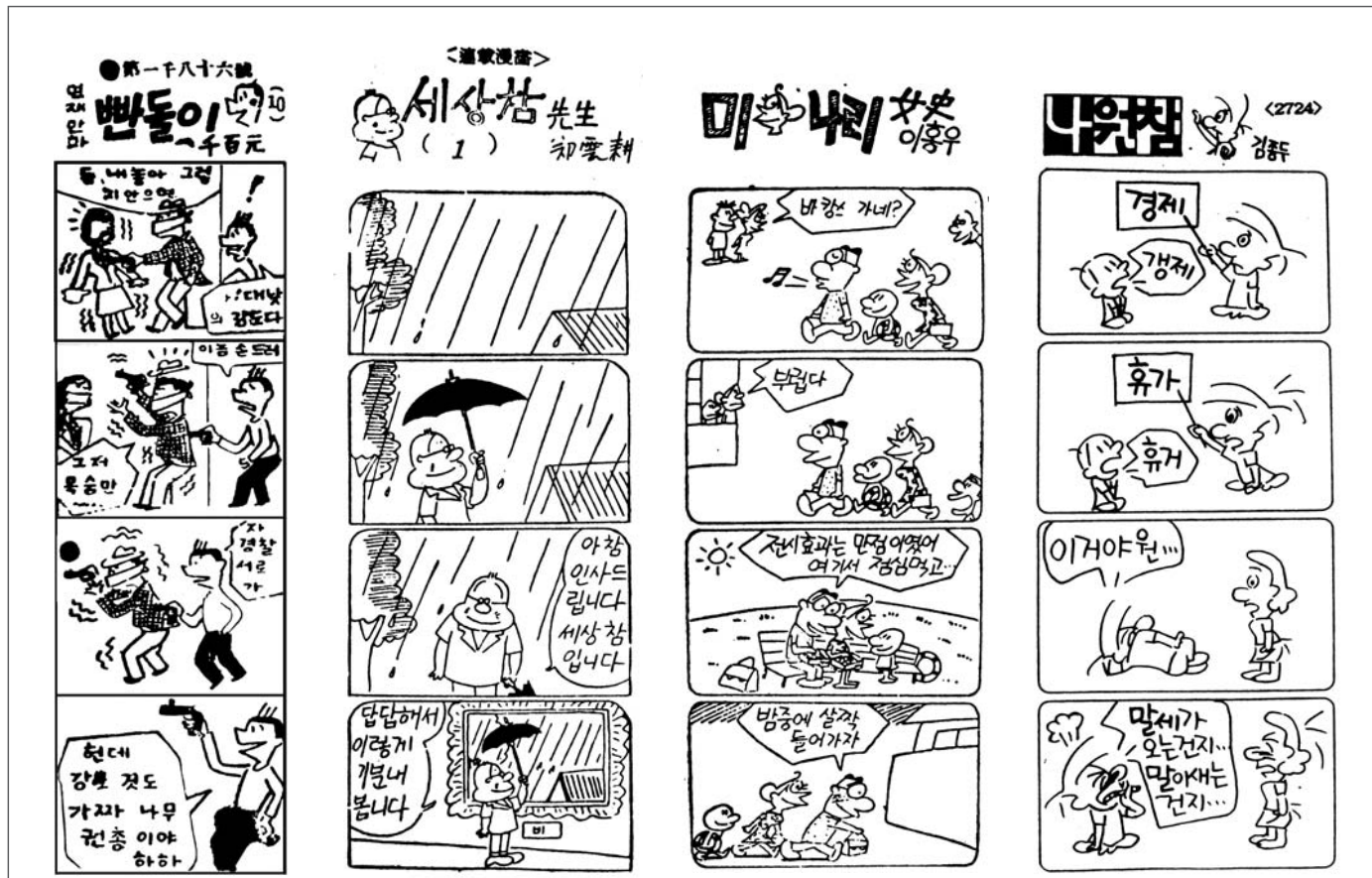
창간한 지 8년이 지나 대관(현재 신문크기) 4면으로 성장한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1960년 4월20일자에서 민주도시 광주에 반진 4·19의 뜨거운 함성을 전하고 있다. 1면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나온 광주교 학생들의 사진을 실고 '광주서도 19일 상오 데모 전개, 광고생 약 500명 광고생 부고도 광주여고생 500여명도 합류'라는 제목의 톱기사를 보도했다. 이날 광고생 박경열 외 38명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학원에 경찰은 간섭말라"고 요구하는 당찬 모습을 보였다고 신문은 밝혔다. 20일자 신문 1면에 4·19 혁명 관련 기사는 모두 10여 쪽으로 전국 각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기미대 경찰관이 거리로 나선 군중을 제지하는 사진도 보인다.

1961년 5월17일자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1면에 '육해공 해병 '쿠데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5·16 소식을 전하고 있다. "16일 새벽 3시경 요란스러운 총성이 서울 시내의 정적을 깨뜨렸다"는 서울발 기사는 3부를 완전장악한 군부와 3군이 군사혁명위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당시 의장인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의 얼굴사진을 함께 실었다. 비상戒嚴令 선포, 조각 구성, 주한미군의 자체 경비 강화 등의 소식과 함께 3면에서는 '혁명의 소식 잡겠' 시민들 모두 놀라'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반응을 알리고 있다.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은 신문 특보앞에 인신안해로 몰려들었고 은행문은 닫혔다는 내용의 기사와 당시 도시의 침울한 표정, 법원과 검찰·경찰의 반응, 관련 사진들과 함께 자세히 보도했다.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1980년 5월 제대로 발간되지 못했다. 5월19일자 신문에 김종필·김대중씨 연행, 20일자 김재규 등 5명 사형 확정 소식을 전한 뒤 6월22일에서야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라는 속간의 말을 사고로 내려 신문을 내기 시작했다. 사고에서 임직원들은 "필설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을 참고 견디신 애독자 여러분의 가내에 진정 평안과 무사하심을 기원한다"며 슬퍼했다. 그리고 "10여일 동안 제작 배포하지 못한 것은 창간 28년의 긴 세월 속에 처음 당하는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며 한탄했다. 1면 광고는 백지 위에 '광주사태 희생자의 명복을 빌립니다'를 썼다. '비극의 광주사태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3면 기사의 제목은 '민주시민의 긍지...무등산은 알고 있다'였다.

1997년 12월19일자 광주일보는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호남의 거목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전하며 김대중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헌정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의 의미와 김 전 대통령과의 일문일담, 의미와 과제, 김 전 대통령의 일생 등을 집중 보도한 광주일보는 19일 새벽 옛 전남도청에 모여 '기쁨을 만끽하던 시민들의 박찬 감동, 민주 외길을 걸어온 김 전대통령의 과거 및 가족의 사진 등을 함께 실었다. 사실에서 광주일보는 김 전대통령에게 소외와 한을 승화시켜 새로운 2000년대를 열어줄 것과 IMF 외환위기에 속어 축배가 아닌 경제 행진기에 나서줄 것, 그리고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웅비의 나라를 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일보는 2002년 6월 22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스페인을 꺾고 4강 신화를 이룩한 기쁨을 전 국민과 함께 했다. 경기 다음날인 6월23일은 일요일로 신문 휴간이어서 광주일보는 4쪽짜리 호외를 발행, '빛고을에서 4강 해냈다'라는 큰 제목 아래 한국 축구 4강 신화를 축하했다. 광주일보는 호외를 통해 전·후반 경기 내용과 연장전, 승부차기 등의 모습을 1~5분대로 압축해 지면에 중계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66만여명이 참가한 다양한 응원전을 상세히 보도하며, 지역민들의 4강 영원을 담아냈다. 또한 6월24일에는 신문 사실을 통해 4강 신화를 이룬 한국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잠재력 힘을 각인시켰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 4컷만화로 본 세상

광주일보의 시사만화는 59년 동안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인권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독자들의 염원을 대변해왔다. 네 컷의 만화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풍자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비판과 저항·해학의 마당이었다. 광주일보 시사만화는 59년 동안 12명의 시사만화가에 의해 19명의 만화 주인공을 탄생시켰다. 본보 시사만화는 경찰의 폭력 진압을 날카롭게 꼬집다가 아예 삭제된 채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으며(1960년 4·19혁명당시 '우주시대'), '아~ 아~ 잇따라 어찌 그날을'이라며 80년 5월의 아픔을 지역민과 함께 했다.(1980년 5·18당시 '미나리아사') 첫 연재만화(1954년 3월3일~4월4일) 주인공은 6·25전쟁이 끝난 암울한 시대를 밝고 희망차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천방지축의 꿈많은 10대 청소년 '반돌이(반인족)'를 내세웠다. 천백원 화백의 '반돌이'는 직설적이고 재치있는 내용으로 인기를

### 천방지축 '반돌이'부터 지역민 올린 '나원참'까지 강렬한 비판으로 민주화 갈망하는 독자지원 대변

모았다. 반돌이가 권총강도를 가져 나무꾼 총으로 위협, 검거해 경찰에 넘기고보니 강도의 총도 나무꾼총이라는 내용이다. 정운경 화백이 1968년 8월15일부터 69년 6월17일까지 연재한 '세상참 先生(인족에서 두번째)'은 주로 당시 답답하고 암울했던 정치·경제상을 비꼬았다. 마땅한 돌파구가 없던 답답한 시대에, 비 내리는 그림에서라도 시원함을 느끼고자 하는 풍자 내용을 첫 호로 삼았다. 이흥우 화백의 '미나리 女史(오른쪽에서 세번째)'는 5·18의 아픔을 처절하게 표현하고,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시대 비판사상이 강했다. 1983년 7월2일부터 '나원참(맨 오른쪽)'을 연재하고 있는 김중후 화백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급변했던 지역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방면을 두루 섭렵하며 지역민들을 웃기고 울렸다.

시사만화는 강렬한 비판 정신 때문에 공안 당국의 잦은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60년 4월21일자 '우주시대(임병성 화백)'는 경찰의 강경 시위 진압을 강하게 꼬집었다. 처음에는 맨몸으로 진압하던 것을 곤봉, 소방차, 비행기, 대포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만화는 아예 뜯어내진 채 백지 상태에서 발행했다. 이에 임병성 화백은 22일·26일자 만화를 통해 문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주인공의 모습과 새장에서 새를 꺼내 날려 보내주는 모습을 각각 말(지문)없이 그림으로만 보여줬다. 또한 80년 12월1일 첫 선을 보인 윤역옥 화백의 '오기로 선생'은 '오기로'라는 이름이 반발 심리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안사의 외압에 의해 단 이를 만에 '오독이 선생'으로 이름을 바꾸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채희중기자 chae@



### 광로 본 시대별 사회상

시계방향으로 1976년 6월 22일 근로 광고, 1955년 10월 9일 취약 광고, 1961년 6월 27일 약품 광고, 1976년 6월 18일 프로레슬링 광고. '광고'는 그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시대 표지판'이다. 광고의 내용과 변화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흐름이며, 당시의 문화·역사의 거울이기도 하다. 21일 지령 19000호를 맞은 광주일보의 광고를 1950년대부터 살펴보자. <1950년대>=6·25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현재의 신문처럼 5단광고가 자리 잡지 않은 그 시절에는 신문 밑면에 각각의 다양한 크기의 광고가 기사와 크게 구분없이 실렸다. 당시 가장 큰 광고주는 극장. 유일한 오락 거리였던 영화는 제법 큰 크기(가로 20cm, 세로 18cm)의 광고로 실렸다. 감기약과 쥐약 등 약품 광고도 많았다. 전남도는 '춘계정기치도주간'(春期定期治道週間)을 알리는 광고를 통해 주요 도로의 보수 기간을 공지하기도 했다. <1960년대>=많은 사람이 배고프고 아팠던 시기. 약품 광고가 신문의 하단을 대

### 경제성장으로 80년대 브릿지 광고 등장

부분 점령했다. 회충약과 설사약부터 흔한 질병이었던 임질·매독 치료병원 광고까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던 시기였다. 수년 전부터 유행중인 숙취해소를 료처법, 이 시절에도 '음주 전후 복용하라'는 약 광고가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이스크림 판매를 알리는 과자점 광고는 경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매년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70년대는 본격적으로 소비 제품 광고가 부쩍 많아졌다. 선풍기와 TV·냉장고 등 가전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신문 하단 곳곳에 자리 잡았다. 미싱과 콘로 등도 꾸준히 광고를 통해 소비를 부추겼다. 지난 시절 평균 크기 가로·세로 15cm를 넘지 않던 광고들이 경제적 여유 덕분에 광고란을 통째로 사용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당시 전성기였던 프 로레슬링 광고도 이제롭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1980년대>=신문 광고는 지면 하단의 '5단 광고'방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절. 80년대는 생활광고 전성시대였다. 시계 전과 경양식 레스토랑, 피아노, 커피, 가 구집, 미용실 등 갖가지 생활광고가 넘쳐났다. 텍스트 위주였던 광고는 이 시절 컴 퓨터그래픽을 이용하거나 사진편집을 통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광고는 신문 하단을 넘어 양면에 통째 걸치는 초대형 '브릿지 광고'로 변화 를 꾀하기도 했다. <1990·2000년대>=광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돼 '돌출광고'가 등장했다. 작은 크기지만 기사와 기사 사이에 자리 잡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이 시기 광 주일보 광고란은 책광고와 서적, 학원광 고 등이 많은 면을 차지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을 시도했고, 이를 신문에 광고하면서 새로운 광고주로 등장하기도 했다. 2000년대는 광고 종합시대로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출현했다. 본격적인 부동산 여유 덕분에 광고란을 통째로 사용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당시 전성기였던 프 로레슬링 광고도 이제롭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